

# 깍~ 무더위 잡는 공포극



##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공포연극 6호실' 공연 현장

연극은 관객이 참혹한 폐허에 입장하면 서부터 시작된다. 입구에서 객석까지 가는 길부터 어둡고 음산해 좁은 귀신의 집을 연상케 한다. 이 때문에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들의 비명이 들린다.

또 작품의 배경이 되는 정신병원 병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무대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출연진의 리얼한 연기는 관객들을 90분 동안 몰입시키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연극 중간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귀신의 등장으로 조명이 꺼질 때면 관객들은 몸을 움츠리고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 어둠 속, 귀신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공포 연극 6호실'이 인기몰이 중이다. 광주에서는 거의 공연된 적이 없는 본격 공포물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면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콘텐츠들이 넘쳐나지만 드라마와 영화는 스크린과 화면을 통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친다. 하지만, '공포연극 6호실'은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관객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 정신병원 병실 배경 작품 한눈 팔 새 없이 90분 몰입 피서철 맞아 인기몰이 9월 24일까지 공연

관객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등장인물은 다큐멘타리를 찍기 위해 자유양병원을 찾았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된 장수, 그리고 실종된 희연이다. 연극은 희연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는 장수의 진술로 시작된다.

주인공인 장수와 희연은 UCC 제작 동아리의 입회 동기다. UCC 제작 동아리원인 두 사람은 포트폴리오 제작 겸 공포 다큐멘타리를 기획하게 되고, 20여 년 전의 문만을 남긴 채 문을 닫게 된 자유양병원을 취재하기로 한다.

자유양병원은 20여 년 전 원인모를 화재와 미해결 토막 사체 유기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지금은 미스터리 공포 마니아

들이 찾는 곳이다.

평소 희연을 찍사랑해온 소심한 장수는 VJ를 자칭하며 희연을 따라나선다. 자유양병원을 찾아가던 중, 길을 잃고 헤매던 희연과 장수는 마을사람의 도움으로 폐허가 된 병원을 찾게 된다. 화재로 터만 남은 병원 건물에 유일하게 형태를 갖추고 남아있는 병실 6호실. 그들은 6호실 안에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연 일기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관객은 배우와 함께 6호실 안에 갇힌 채 90분 동안 극 안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극 초반부터 관객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포연극 6호실'은 귀신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생생함이 더해져 인기를 끌어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동산아트홀 공연장의 가변 무대 활용이 눈길을 끈다. 무대와 객석이 나누어져 있는 기존 공연장을 탈피, '공포극'에 맞게 새롭게 배치됐다. 본래 관객석으로 꾸며졌던 곳이 무대가 됐고, 관객들은 무대를 빙 둘러싸고 앉아 극을 바라보게 된다. 멀찌감치 무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폐허가 된 정신병원 현장 안에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만끽할 수 있다.

'공포연극 6호실'의 연출자 성화숙씨는 "관객 한 명 한 명 모두 6호실 안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대와 무대를 둘러싼 관객석에 신경을 썼다"며 "무대 활용에도 공을 들였지만 연극의 결말을 '열린 결말'로 남겨둬으로써 관객들이 연극에 대해 서로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스퀘어 10주년 기념 '야트9 연극·뮤지컬 페스티벌' 8번째 작품이다.

공연은 9월24일까지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3시, 7시 두 차례, 일요일은 3시에 진행되며, 월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티켓 가격 4만 원. 문의 062-360-8433.

/전문기자 e16621@kwangju.co.kr



# 주민·관광객 어울려...펭귄마을 노래자랑 열린다

##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 남구관광청 5개 사업 선정 '느린 우체통' 편지 쓰기도

광주 양림동을 방문하는 이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이 있다. 펭귄마을이다. 동네주민들이 수집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관광객을 추억 속으로 이끌며 곳곳에 그려진 벽화는 촬영 포인트가 됐다. 한달에 한번씩 펭귄마을에서는 노래자랑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진행중인 남구관광청은 사업 중심지 양림동과 사직동 문화 자원 개발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진행, 모두 다섯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노래 자랑 '펭귄 스타를 찾아라!'는 탄탄컴퍼니가 제안한 사업으로 펭귄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다. 매월 월 장원을 선발하고 연말 결선대회를 열어 '양림 펭귄 스타'를 선정하게 된다.

양림문화사랑회가 진행할 '메모리&양림'은 광주에서 가장 먼저 근대 문화를 받아들인 양림동을 다양한 아이템으로 풀어내는 인문학 축제다.

양림동에서 나고 이곳에서 작품 활동



매월 셋째주 토요일 노래자랑이 열리는 양림동 펭귄마을.

을 펼친 고(故) 이강하 작가를 기억하는 '이강하 꽃길 그리기'를 비롯해 '재즈 시대의 이야기', '김연실의 모노드라마' 등이 진행된다. 양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 극단 '숲'은 '빈자들의 어머니'였던 서서성 선교사의 일대기를 재현하는 거리극을 준비중이며 펭귄마을 자치회는 펭귄마을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그밖에 양림사건연구소가 진행하는 '느린 우체통'은 직접 제작한 양림동의 관광엽서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15일 첫 행사에서는 오후 3시 펭귄마

을 꽃밭에서 노래자랑 '펭귄스타를 찾아라!'가 열리며 오후 5시 펭귄마을을 휩쓸고 마당에서는 '메모리 & 양림' 첫번째 프로그램 '이강하 꽃길 그리기' 행사가 진행된다.

주민아이디어공모사업은 남구관광청이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근대예술여행'과 연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남구관광청' 홈페이지(visityangnim.kr)와 페이스북(facebook.com/visityangni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7-23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루브르 박물관 밀레·앵그르 작품 감상

### 인문지행 문화예술행사 16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밀레 작  
'건초 묶는 사람들'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행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기획은 세계의 미술관 명작 감상을 통해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

이번 강의는 루브르 박물관의 쉐리관에 전시되어 있는 회화를 감상하는 자리로 신고전주의 미술의 거장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 '농민의 화가'로 불리

는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 로코코 미술의 대가 장 앙투안 와토를 만난다.

중요 감상 작품은 앵그르의 '발롱송의 목욕하는 여인', 밀레의 '건초 묶는 사람들', 와토의 '키티라 섬의 순례' 등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 심옥숙 대표가 맡는다. 무료. 인문지행(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문화관광재단 '섬thing in 금오도' 참가자 50명 모집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전남의 섬을 탐방하고 문화 예술교육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섬thing 캠프'에 참가할 청소년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섬thing in 금오도'라는 테마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진행한다. 여수 금오도 일대 섬 자원을 활용한 ▲별난 이야기(음악), ▲별난 사람들(미술), ▲별난 불거리(사진/영상), ▲별난 먹거리(요리) 4개 주제로 청소년기의 감성이야기, 토래문화, 섬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등 청소년들의 감성을 두드리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섬thing 캠프'는 도내 중학생 1~3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26일까지 이메일(young55@ja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280-5848~9.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